

아트경기 x 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강 건

“강건, 자아를 탐구하기 또는 확장하기”

강건 작가의 작업은 자아에 대한 탐구, 인식을 기초로 한다. 물론 자아는 확정할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한다. 자아의 서사는 감정, 의식, 성찰 등 다양한 의식 정보를 통해 출현한다. 크게 입체와 회화로 이뤄진 강건의 설치는 모호한 현상학적 실체로 드러난다. 이는 주로 엄밀하게 시각적 분별을 이루는 색과 형태의 도상, 기묘한 실체로서의 기호, 그리고 촉각의 인덱스로 구성된다. 회화 역시 입체의 연장선상에서 설치에 부속되며, 평면의 공간에 기울어지는 몸체이자 입체의 한 단면으로의 포착이라 할 수 있다.

촉각적으로 인지된다는 것은 재료의 출처와 사용과도 긴밀하게 연관되는 부분으로, 가령 양모를 겔 미디어와 섞어 물감처럼 만들어서 손으로 퍼 바르는 작업 방식에서, 털의 질감은 ‘투명함’ 안에 흡착되면서 입체적으로 재분절된다. 여기에는 운동성이 있으며, 그 운동성에는 신체의 접지와 신체로의 접지에 대한 어떤 충동도 있다. 《타아상실》(2021)에서 선보였던 털의 생명체와 형상 들은 분명히 인간의 연장인 것 같다. 곧 비인간이 아닌 비인간이 될 수 없는 인간, 여전히 인간의 잔여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자리한 경계의 인간이다. 이는 인간의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그러한 충동을 함축한다. 또는 그러한 상태에 처한 심리가 어떤 아키타입으로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강건, 어머니, 200x200cm, 캔버스에 양모, 겔미디어, 2021

얼굴 위에 얼굴이 있는 것과 같이 강건의 작품에서 얼굴은 그것이 뚜렷한 표지로 분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곧 이러한 얼굴은 하나의 신체이며, 형해화되거나 부풀어진 신체의 파편이다. 작가의 자아는 일종의 상징적 이미지에 가까우며,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단서는 ‘나’의 어떤 상태에 자리한다. 얼굴은 이러한 자아를 각각의 얼굴로 ‘환원’하지 않으며, 미지의 존

재로 수렴시킨다. ‘자아’는 나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며 내가 (온전히) 마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리는 자아를 타자로 출현시키는 것에서 기인한다. 자아와 타자가 절합된 존재로 볼 수 있는 “타아”의 형상은 억눌려 있고, 이는 타자의 침입 혹은 접속으로부터 자아의 형성이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게 구성됨을 의미한다.

축소된 자아와 과잉된 자아가 손을 잡는 구간에는 타자와의 비타협적 관계가 자리하며, 이는 물리적으로는 비정형적 신체 양상과 불안정한 심리 양상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심리적 드라마의 자장에서, 캐릭터와의 불완전한 일치가 전제된다. 《비완》(2022)의 경우, 작가의 서사는 서문에서 직접적인 문학적 양식을 이루는데, 이는 작품이 결정되는 지점이 잔여적인 것들과 모호한 것들이 합성되는 부분에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캐릭터가 자리하는 정서를 보여주되 그 정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차원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작품은 서사를 함축한다. 이는 캐릭터와의 거리를 벌릴 수 있기보다 그 거리 자체를 확정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 거리를 일별해야 함을 의미한다.



강건, 비완성인, 48x42x113cm, 레진, 폴리우레탄, 먼, 합성모피, 2020

강건은 매체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로 접근을 어찌면 반복해 왔다. 최근 《비완》의 입체들은 작가 자신이 직접 쓴 서문에서처럼 여전히 불투명한 자아에 대한 접근이 열망 되는 듯 보이지만, 투명함과 결정되어 있음의 과정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의 지난 작업들과 비교해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 이는 형태적으로도 다양하며 여러 주제로 연장될 가능성 역시 함축한다. 나아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물 자체가 언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새〉(2022)에서, ‘로새’는 암말과 수탕나귀를 인위적으로 교배해 만들며, 2대가 생기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서사적 자아의 일단으로 연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건 그 피부, 그리고 뒤틀리고 찢그라들며 결정된 과정성 자체이다. 여기서 투명함은 모세혈관 같은 피부 조직의 알레고리 이전에 겔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털이라는 재료 자체가 갖는 미시 세계에서 출현한다. 투명함의 두께로서 피부는 전체 형상과 다른 2차적인 시각을 구성한다. 곧 분명하게 포착되지 않는 입체적 질감은 시각적 소용돌이를 만든다. 이러한 매체 자체의 집중은 자아의 어렵듯한 분위기 속에 저울질 되며 고유한 시각적 충동을 만든다는 점에서, 자아의 ‘범주’는 조금 더 모호해지며 작가 자신의 고유성이 통약불가능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경로를 만든다. 그리고 이는 이후 강건 작가의 자아 너머로의 서사를 기대하게 한다.

글 김민관 / 예술비평



(현) 아트신 편집장.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에 걸쳐 동시대 현장의 다양한 예술에 관해 리뷰/비평을 생산하며 문화예술 전반에 관심을 두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미학적 접근과 철학적 통찰력, 예술의 사회적인 역할의 제고 등 여러 지점에서 예술을 보는 시선을 확장하고자 한다. 저서로 『퍼포먼스 아트의 다층적 시선』(2011)이 있다.

작가 강 건 Kang Kun b.1988 (2022 아트경기 선정작가)



새인간 177x46x140cm 레진, 폴리우레탄, 면, 합성모피, 비닐, 실 2020

강건은 인간의 양면성과 타자의 각기 다른 시선들로 재창조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연약하고 부드러운 재료들을 사용하여 평면과 입체작업을 병행한다. 작가는 그를 둘러싼 공동체와 문화 안에서 자아 변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탐구하며, 개인의 서사를 은유하는 조각의 형태를 연구한다. 그의 작업에서 잘린 조각들은 개인의 일부이지만 타자에게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결국 '비(非)완성의 형상'을 제시한다. 주요개인전으로 <아이고>(영은미술관, 2022), <타아상실>(수원시립미술관-아트스페이스 광고, 2021) 등이 있다.

사업소개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2022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은 아트경기 협력사 믹MEEK의 기획으로 진행, 2022년에 선정된 아트경기 작가와 다학제적 장르를 대표하는 멘토를 매칭하여 비평을 진행한다. 총 8인의 아트경기 작가와 3인의 전문가는 9월부터 11월 동안 1:1 면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그 결과 총 8편의 비평글이 작성되었다. 8편의 비평글은 작가와 협력사 믹, 전문 평론가가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트경기 작가의 다양한 해석과 장르 확장의 지점을 제공한다.